집착 떠난 자리가 '열반'



지안 스님의 〈능엄경〉 강해

㉕ 윤회와 열반

〈원문〉 아난이 부처님께 절을 하고 사뢰었다. "어찌하여 생사에 윤회하게 하는 것과 열반을 누리게 하는 것이 다 같이 육근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십니까?"

부처님이 아난에게 고하셨다. "근(根)과 진(塵)이 근원이 같고, 속박과 해탈이 둘이 없으며, 식(識)의 성(性)이 허망하여 마치 허공꽃(空華)과 같느니라. 아난아, 진(塵)으로 말미암아 알음알이(知)를 발하고, 근(根)을 인하여 상(相)이 있으니, 상(相)과 견(見)이 자체 성품이 없어서 서로 기대있는 갈대와 같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네가 지금 지견(知見)에 알음알이(知)를 세우면 곧 무명의 근본이요, 지견에 견이 없으면 이것이 곧 열반의 샘이 없는 진실하고 깨끗함이니 어찌 이 가운데 다른 것을 용납하겠느냐?"

〈강해〉 중생의 생사와 부처의 열반이 모두 육근(六根)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아난이 의심이 생겨 물었다. 이에 대해 부처님이 먼저 근(根)과 진(塵)이 근원이 같다고 대답한다. 이는 육근이나 육진이 모두 여래장 묘진성인 본각(本覺)에서 나온다는 뜻이다. '속박과 해탈이 둘이 없다'는 것은 중생은 근(根)과 진(塵)에 속박이 되고 부처는 해탈이 되므로 속박되는 근진이나 해탈하는 근진이 같다는 것이다. 또 근과 진에서 생기는 식(識)이 그 성품이 허망하다 하였다. 보통 육근(六根)과 육진(六塵) 육식(六識)을 합하여 십팔계(十八界)라 하는데 이 십팔계 범주 안에서 중생은 생사윤회를 거듭하고 부처는 생사를 떠나 열반을 누린다는 것이다. 집착하니까 생사가 있게 되고 집착을 떠나면 열반을 누리게 된다는 것. 중생은 근을 통해 진을 찾아서 알음알이 곧 분별을 내게 된다. 이것이 식(識)이니까 식은 곧 근과 진이 작용을 일으켜 식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식심은 허망하여 허공의 꽃과 같다 하였다. 이는 실체가 없다는 말이다. 허공꽃은 눈이 피로해지거나 눈병이 났을 때 보이는 것이고 눈병이 없을 때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식심(識心)을 일으키는 상태가 눈병이 난 상태라는 말이다.

'진(塵)을 말미암아 지(知)를 발한다'는 말은 지(知)는 의근(意根)의 작용이지만 육근의 작용을 다 가리키는 말이다. 눈은 명암의 진(塵)이 있기 때문에 보고, 귀는 동정(動靜)의 진(塵)이 있기 때문에 듣는 것이다. 지(知)는 결국 육진을 말미암아 육근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근(根)을 인하여 상(相)이 생긴다는 것'은 근은 육근이고 상은 육진이다. 이 말은 진 때문에 근이 생기고 근 때문에 진이 생긴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근과 진이 서로 독립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비유하여 서로 기대있는 갈대와 같다고 하였다. 교로(交蘆)란 갈대가 서로 의지하여 서 있는 것을 말한다. 연기법의 이치를 설명할 때도 곧잘 이 비유를 든다. 교로라는 갈대는 두 줄기가 서로 의지해 자란다고 한다. 연기법을 정의한 말인 '이것이 있으니 저것이 있다'는 말처럼 근과 진이 서로 짝하여 있는 것이란 말이다. 근(根)·진(塵)이 짝할 때 식(識)이 생기므로 십팔계 안에서 서로 교섭하게 되는 것이다. 결론처럼 말한 '지견(知見)에 지(知)를 세우면 무명(無明)의 근본'이란 말은 근·진이 상호 작용하여 식심(識心)이 일어나면 본래의 각(覺)을 등지게 된다는 말이다. 지(知)는 의근(意根)의 작용이고 견(見)은 안근(眼根)의 작용이지만 육근을 가지고 육진을 분별하여 육식이 일어나게 되는 전부를 말하는 것이다. '지(知)를 세운다는 것'은 분별하여 아는 알음알이를 가지고 집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른바 사물에 대한 고정관념을 만들어 그것을 옳다고 여기고 스스로의 생각에 묶이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아집(我執)과 법집(法執)을 만들고 나아가 생사에 유전(流轉)하는 근본이 되므로 무명의 근본이라 하였다.

'지견에 견이 없다'는 것은 근이 진을 대하여도 식심이 일어나 집착을 만들지 않는 것을 말한다. 보아도 봄이 없고 들어도 들음이 없는 경지이다. 무심(無心) 혹은 무위심(無爲心)이 되어 경계에 끌려가지 않으므로 아집도 생기지 않고 법집도 생기지 않는 무집착의 상태이다. 이렇게 되면 열반을 얻어 번뇌에 쫓기지 않고 청정하게 스스로 거하게 된다는 말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생멸문·진여문서 본 육바라밀



구선 스님의 〈묘법연화경〉 강의

㉕ 육바라밀

〈원문〉"부처님이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때의 왕은 바로 내 몸이요, 선인은 지금의 제바달다이니라. 이 제바달다 선지식을 말미암은 까닭에 나로 하여금 6바라밀다와 자비희사와 32거룩한 몸매와 80가지 잘생긴 모양과 자줏빛 황금색과 열 가지 힘과 네 가지 두려움 없음과 네 가지 붙들어 주는 법과 18가지 함께 하지 않는 법과 신통과 도력을 구족하게 하였느니라."(묘법연화경 제12품 제바달다품 중)

〈강의〉 바라밀은 보시바라밀, 지계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지혜바라밀을 말한다. 생멸수행의 6바라밀이 있고 진여수행의 6바라밀이 있다. 6바라밀 중 보시, 지계, 인욕바라밀은 생멸심을 제도하기 위한 수행이다. 선정과 정진바라밀은 각성의 무명적 습성을 제도하기 위한 수행이다. 지혜바라밀은 대지혜를 성취하기 위한 수행이다. 지혜바라밀을 통해 성취하는 대지혜는 여섯 가지가 있다. 일체지, 일체종지, 자연지, 무사지, 불지, 여래지가 그것이다. 이 중 일체지는 생멸수행을 통해 성취된다. 나머지 다섯 가지 지혜는 진여수행을 통해 성취된다. 생멸 수행의 6바라밀은 중심과 각성, 본성과 밝은성품, 심과 식의 바탕, 본성의 간극과 무념·무심이 방편으로 활용된다. 선정의 단계에 따라서 서로 다른 방편이 쓰인다. 초선정에서 3선정까지는 중심과 유위각이 방편으로 쓰인다. 4선정부터는 본성과 일시적 무위각, 밝은성품이 더해진다. 5선정부터는 본성과 심의 바탕, 일시적 무위각과 밝은성품이 더해진다. 6선정부터는 일시적 무위각과 식의 바탕, 무념, 무심, 밝은성품이 더해진다. 7선정부터는 본각과 본성의 간극이 활용된다. 8선정부터는 본각과 간극, 무념, 무심, 밝은성품이 함께 활용된다. 진여수행의 6바라밀은 구경각과 진여심이 활용된다. 과위의 성취에 따라서 제도의 방법과 대상이 서로 달라진다. '바라밀'이란 건너고, 극복한다는 뜻이다. 생멸심을 건너고 각성의 무명적 습성을 극복하고 밝은성품의 자연적 성향을 제도하는 것이 바라밀이다. 생멸 수행과 진여 수행을 통해서 이 세 가지 무명의 원인을 극복하고 대지혜를 체득하는 것이 바라밀을 행하는 목적이다. 보시바라밀, 보시는 베푼다는 뜻이다. 생멸수행을 놓고서 행해지는 보시 바라밀은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는 자비희사로서 행해지는 보시이다. 두 번째는 본성으로 행해지는 보시이다. 세 번째는 간극에 머물러서 행해지는 보시이다. 보시를 행하려면 먼저 이기심을 극복해야 한다. 이기심이란 의식·감정·의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마음이다. 이기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의식·감정·의지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 지켜볼 줄 아는 마음을 갖춰야 한다. 지켜보는 마음으로 의식·감정·의지를 단속하게 되면 이기심에 빠지지 않게 된다. 그렇게 되면 보시 바라밀을 실천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춘 것이다. 자비희사로써 보시를 행한다.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로 보시하고 마음의 위안이 필요하면 마음으로 보시한다. 편안하고 착하고 고요한 마음으로 보듬어 주는 것이 이때의 보시이다. 이것이 첫 번째 유형의 보시이다. 본성을 활용해서 보시를 행한다. 두 가지 경우의 본성 보시가 있다. 첫 번째 경우는 상대가 원하는 것이 없을 때, 두 번째는 상대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이다. 상대가 원하는 것이 없을 때는 상대를 통해서 본성으로 들어간다. 그런 다음 본성에 머물러서 밝은성품을 생성해낸다. 그 밝은성품으로 상대를 감싸준다. 본성을 봄으로써 갖추어지는 공덕을 상대에게 회향한다. 상대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는 그 마음을 본성으로 비춰준다. 그리고 원하는 바를 경계로 삼는다. 경계는 한 점이 되고 본성은 바탕이 된다.

〈영양 연화사 주지〉



지흐 스님의 〈능가경〉 강설

㉕ 말과 뜻이 하나

부처님 가르침, 있는 그대로 듣자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자체가 바로 전달하고자 하는 뜻이지, 다른 의도를 숨겨두는 말의 뜻은 없다. 비밀리에 특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어떤 가르침도 존재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그 가르침 그대로 새김하면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헤매지 않고 바로 알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진실한 숨은 뜻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찾다가 어떤 특정한 언어를 배워야만 하는 것처럼 느낀다. 오래전에는 우리말로 된 경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다른 나라 언어를 배웠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부처님의 원음을 한글로 쉽게 번역한 〈니까야〉가 있기 때문이다.

가르침은 아주 평범하여 누구나 소통할 수 있는 언어면 충분하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 당시에 가장 낮은 계급을 가진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인 팔리어(Pali)를 사용하여 가르침을 펼쳤다. 누구나 듣기만 하면 바로 알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신 것이다. 그러니 숨은 뜻이 있을 수가 없다. 있는 그대로 듣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부처님은 여러 뜻으로 가르침을 전달하지 않는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말씀하신다. 그런데 그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려고 한다. 사실을 이해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가르침을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리둥절하여 지나쳐 버린다. 그리고 엉뚱한 것을 찾아다닌다. 그러면서 가르침을 어렵다고 말한다. 가르침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금 내가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만 말씀하실 뿐, 과거에 일어난 일이나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 가르치지 않는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나'에 대해 말씀하신다. '물질은 내가 아니다. 느낌, 지각, 의도, 의식은 내가 아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 지금 자신이 듣고 있는 그대로다. 이 말씀에 얼마나 빠르게 틈 없이 접근하느냐의 문제이지, 이해하거나 못하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다. 만약 여기에 온 힘을 다해 집중한다면 의식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모양의 이미지는 끊어지게 된다. 그러면 공간이라는 개념도 사라진다. 그때 자신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그때 아는 '나'라는 것은 어떤 기억된 물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이름도 붙일 수 없다. 부처님은 이때의 이름을 불생불멸이라고 하셨다. 이 이름은 이해를 돕기 위한 방편이며 방편은 등대와 같다.

"여래는 비록 불생불멸, 자성열반, 삼승, 일승, 심, 자성 등을 말하지만 사람들이 그 언설과 이름 그리고 어의에만 매달려 그 구경의 뜻을 마음속으로 증득하지 않는다면, 이는 불법을 비방하는 지견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네. 이는 여래가 세운 언어의 본뜻과 들어맞지 않는 것으로 또 다른 하나의 망상일 따름이네."

배가 등대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곳에 가면 배를 정박할 수 있는 항구가 있으니 등대를 의지하여 가는 것이다. 배가 항구에 정박하면 등대는 무의미해진다. 자신이 무엇인지를 마음으로 증득하는 순간부터 언어는 그에게 아무 뜻이 없어진다. 이름은 언어로서의 기능이지 그것이 지시하고 만들고 규정하는 특정한 모양이 생겨날 수 없다. 이름이 없으면 그것을 전할 방법이 희박하니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유일한 가르침인 침묵만 할 수도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참다운 가르침의 묘용을 그들은 알 수 없으므로 등대가 필요한 것이다. 이것을 사용함에 부작용은 있겠지만, 부작용 때문에 등대를 버리지 못함이니 등대를 그것으로 오인하면 안 된다. 자칫하면 등대를 그것으로 잘못 알아서 언어로 그것을 말하면서 무엇이 잘못인지를 모르고 놓친다. 왜냐하면 듣는 사람들이 방편의 말과 모양에서 만족하는 모습을 보고 도취되기 때문이다. 생겨난 재난은 재난이라 말하지 않고 온다. 거친 재난은 고통이지만 미세한 재난은 달콤하다. 그들이 웃고 박장대소하는 순간 모든 것이 죽어간다. 다만 그 죽어가는 것을 모른다. 죽어있는 것과 살아있는 것이 전도되었다. '당신은 살아 있습니까?' 여기에서 바른 답을 얻어야 한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배철완	T 053-985-9190	H 010-6780-9190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문화사업단	구광국	T 02-2004-8213	H 010-3048-4008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